

051522 주일설교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1-3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누가 자기에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다음 주에 그 사람이 그전처럼 인사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여기에 ‘나’ 라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내 입장에서 사랑을 받기만 원하면 그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사랑은(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서로 주고받아야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받기만 하는 사랑에서 나누는 사랑으로, 또 끼리끼리 주고받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서로 사랑하라” 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세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사랑에 관한 말씀은 이미 성경에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레위기 19:18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였고, 예수님께서서는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이나고 묻는 서기관에게 마가복음 12:29-31에 보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 계명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서 “서

로 사랑하라” 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헨드릭슨이라는 성서 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새 계명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지속적이며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셔서 “짠” 하고 한 순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렌스키라는 분은, 새 계명은 모세가 명령한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사랑’ 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같이’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도스, *katho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만큼’,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만큼의 깊고, 큰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들었을 때 첨에는 별거 아니네 했다가, 자세히 보고는 이걸 불가능하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의미인거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생각해 보고 사랑해 주라는 거죠. 내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고 배워서 닮아가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 율법 안에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새 생명 안에서는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 섬김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종들, 노예들이나 하는 하찮고 낮은 일이었던 발 씻는 일로 제자들을 손수 섬기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며, 남을 이해하고 섬겨주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한번은, 제가 뉴욕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일입니다. 벌써 17년전쯤 일이네요. 당시 제 두 아이들도 어리고, 신학생 마지막 학기 감당하면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있었을 때라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가정환경이 아주 어려운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마침 학생 부모님께서 너무도 편찮으셨죠. 학생들과 함께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고기 큰 거 두 팩에 씹거리 등을 사서 쌍둥이 자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때 저희에게도 고기 큰 거 두 팩은 참 귀했거든요. 한 주에 60불로 생활했던 시기였으니까요. 이래 저래 거진 한주 생활비를 털어서 샀습니다. 그렇게 전해주고는, 가난한 지갑이 되었지만 부자인 맘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주석이라고 담임목사님 사모님이 선물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열어보니 고기 큰 거 두 팩을 주신거예요. “야..,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우리는 보통 ‘넉넉해지면 나눠야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난 넉넉치 않으니까 나눌 것이 없다’고 단정지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게다가 가진 자만 없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없는 자는 받기만 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족해도, 부족한대로 나눌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선재적 사랑**입니다. 선재적 사랑이란 말은, 누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보상으로 혹은 보답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베푸는 사랑/시작하는 사랑**입니다. 돌려받을 기회가 없는 경우에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19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8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17이하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서로서로 나누는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부간에, 가족 구성원 간에, 동료 사이에, 이웃간에, 교회식구들 서로서로, 성도들 **서로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믿음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명은 “서로 사랑”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내 옆에, 멀리는 선교지까지 말입니다. 이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골라서 조건과 환경 때문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꼭! 서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결과] 3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또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는 **싸인/표시**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사람들이라 하여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었는데, 오늘날에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여 기독교를 세상사람들이 걱정해주는 놀라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뺏지나 손에든 성경 찬송가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참 신앙인**인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4: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심지어 믿는분들 가운데서도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혹은 ‘성격 (물론 나쁜 성격을 이야기하겠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고 단정짓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변화되리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우기 말로는, 말로 남을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로 설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은 주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선교적인 삶이요, 이를 통해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 변하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결국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수 없도다)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천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지 않으면 안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모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심지어 세상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주는 사랑, 겸손한 사랑, 지속적이며 헌신적인 사랑, 서로서로 먼저 배푸는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오늘날 이 땅에서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